

제1장 계획의 기본구상

1. 계획의 기초

■ 토지공간의 이용·개발과 보전을 위한 토지관리의 지속가능성 담보

- 미래 세대가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의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겨두면서,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

■ 환경·경제·사회의 통합적 접근

○ 환경적 측면

- 도시의 급속한 성장과 외연적 확산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과 대기·수질·토양 등의 오염 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
-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공간구조 형성
-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여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데 주력
-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도시개발을 지양하여야 하며, 자동차에 의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토지자원의 재활용 촉진

○ 경제적 측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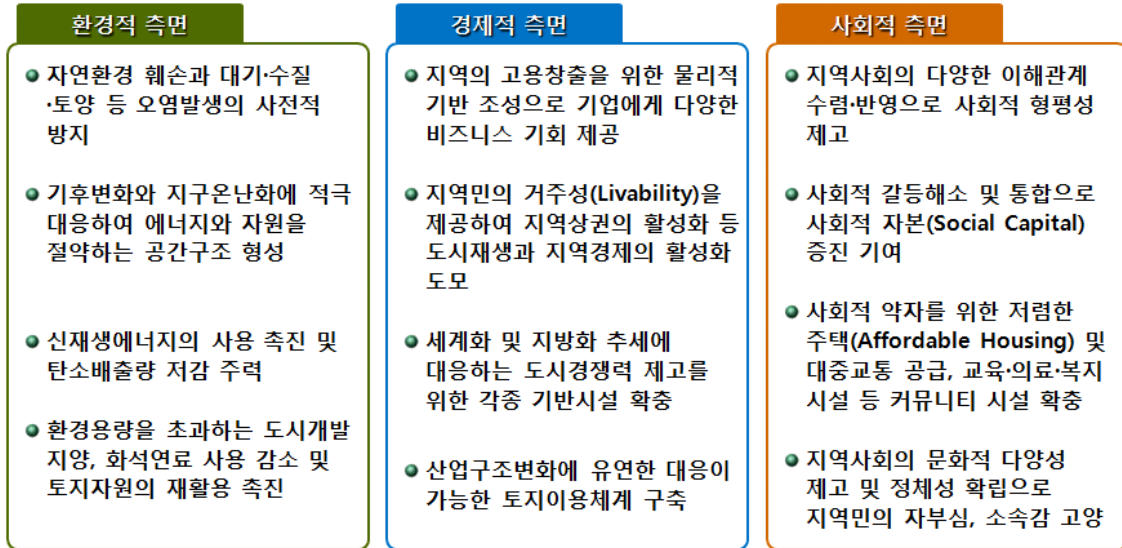
- 지역의 고용 창출을 위한 물리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에게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제공
- 지역민의 거주성(livability)을 제고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도시재생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
- 세계화와 지방화 추세에 대응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기반시설 확충
-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지이용체계 구축

○ 사회적 측면

-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분하게 수렴,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 제고
-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루는 사회적 자본(social capital)의 증진 기여
- 사회적 약자가 경제적, 신체적 이유 등으로 주민으로서의 기본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저렴한 주택(affordable housing)과 대중교통을 공급하고, 교육·의료·복지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는데 주력
- 지역 고유의 특성에 기초하여 각 지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함으로써 도시환경의 획일성을 탈피하고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지역민의 자부심과 소속감 고양

공간의 이용·개발과 보전을 위한 토지관리의 지속가능성 담보

(미래 세대의 자주적 토지이용 가능성 확보 및 현재 세대의 필요충족 개발)



(그림 II- 1) 계획의 기초

2. 이슈와 과제

2.1 이슈 및 문제점

■ 인구증가율의 지속적 둔화

- 광양시의 인구증가율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인구감소가 우려되며,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사회문제 대두
- 2009년~2011년의 인구증가율은 5.1%에 비해, 2011년~2013년의 인구증가율은 0.6%로 감소

■ 원도심과 신도심의 이원화

- 원도심(광양읍)과 신도심(중마동)의 이원화로 인해 사회적 문제 발생
- 지역간 경쟁 및 NIMBY현상으로 인해 도시의 통합이 저해되고, 사회기반 시설 계획시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

■ 인접시(순천시)로의 역류 현상

- 쇼핑, 주거, 교육, 의료, 문화, 복지 등 도시의 기본 기능 부족으로 인해 인접시로의 역류 및 예측화 현상 발생
- 광양시의 인구규모에 부합하는 상업·문화·복지시설 등을 확충하고, 인접시군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거점시설 설치 필요